

예술대학 진로지도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구은자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Trends and Future Tasks of Domestic Research on Career Guidance in Art Colleges

Eun-Ja Koo

Dept. of Performing Arts Planning &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된 학술지 게재 논문과 석·박사학위 논문 총 74편의 논문을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성별, 학년별, 예술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주제는 6가지 분석기준에서 적응·행동·경험과 관련된 주제가 총 24편(32.5%)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연구에서는 남녀 전체 대상의 연구가 전체의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년별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편으로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모든 주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술분야별 연구동향에서는 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포함)분야 연구가 5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제별로도 고르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지도 연구는 아직까지 세분화된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구의 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사회적 이슈, 학생들의 전공분야, 학년, 성별, 다양한 연구방법을 반영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rends in domestic research concerning career guidance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a total of 74 papers including journal articles,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2006- 2016 were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period,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s, study subjects' gender, years in college, and field of study in the arts. Research top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six criteria, and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24 studies concerning topics related to adaptation/ behaviors/ experiences, including career-related stress, career maturity, anxiety, preparation and development competences, accounting for 32.5% of the total. In terms of gender, 96% of research included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ree were conducted only for female students. In terms of year of study, 49 studies examined students in all years of study considered students in all years, accounting for 66% of the sample. Trends in research methods were characterized by the quantitative method applied in the study. Regarding the field of study in the arts, 54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field of dance (ballet, Korea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accounting for 73% of the total. In addition, topics in the field of dance were evenly covered by these studies. Most studies concerning career guidance in art colleges were difficult to categorize due to the small number of studies conducted in the sample. It is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reflects various perspectives, social issues, students' majors, year of study, and gender using various research methods.

Keywords : Trends, Career, Guidance, Art Colleges, college students

본 연구는 2015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Ja Koo (Chungwoon Univ.)

Tel: +82-41-630-3406 email: abbigake@chungwoon.ac.kr

Received December 26, 2017

Revised (1st January 9, 2018, 2nd January 24,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청년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어학연수, 토익점수, 인턴십, 봉사활동 등 좁은 취업문에 대비해 다양한 취업준비활동과 함께 취업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9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장기실업자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자 실업 증감률은 10.9%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흥미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등 고려해야 할 현실적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실제로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이 ‘진로문제’로 나타나고 있듯이[3], 대학차원에서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전문적인 진로 지도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연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들의 고용환경 역시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고용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4]. 이와 관련해서 예체능 계열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성과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010년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생들은 대학교의 여러 지원 제도 중 학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진로와 관련된 상담, 멘토링, 지도, 박람회, 취업아카데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대학생의 진로지도는 자신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 능력의 함양 등 다각적인 지도와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6], 이를 위해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분야에서의 대학생들의 취업진로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지도의 개념 및 동향

진로지도는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또는 적성과 진단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도로 직업적 문제의 지도에만 초점을 두는 직업지도와는 다르게 광범위한 인간의 생애 관련된 적응을 지도하는 포괄적 개념이다[7].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초중등학생 중심의 진로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대학들의 진로와 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2016년 대학생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5~2020)을 발표한바 있다[8].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교육 인식개선과 대학 인프라 활용, 지원체계 마련, 진로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향후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학계에서는 진로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면서 연구를 개관하고 동향을 살피는 동향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진로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연구들[6, 9, 10 등], 진로 관련하여 특정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11, 12, 13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14]과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증명한 연구가 있다[15].

대학들마다 학기 중에 취업특강을 통해 전문 강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모의면접 등과 같은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론적 강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연구[16]와 진로교과목을 통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17], 오히려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연구에서 진로교과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목의 내용구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18]가 있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및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연구[19]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20, 21]등 대

학생들이 취업진로 현황과 문제들에 대한 인식부터 스트레স্য인 분석과 취업준비행동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취업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언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로관련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분석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연구동향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예술분야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동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대학의 진로지도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예술분야 정의 및 분류체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물 말한다[22]. 반면 문화예술실태조사에서는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예술로 구분하고 있다[23].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예술분야는 학교와 학과 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 어문, 출판, 문학들은 학교교육에서 인문대학 또는 공과대학에서 다루고 있고, 학교교육에서 디자인, 실용음악 등 응용예술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정책영역에서는 문화산업영역으로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24]. 이러한 분류체계는 산업, 직업, 교육, 조사, 정책 등 각 영역별, 분야별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산업분류와 직무, 직무와 학교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산업, 직업, 교육의 관점 및 정책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띤 분류체계의 재정립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정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등교육기관학부·과표준 코드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순수예술분야(무용, 연극, 음악, 미술 등)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1차적으로 ‘대학생’, ‘취업’, ‘진로’를 핵심 용어로 포함하고 있는 287건의 저널논문과 297건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추출하였다. 2차적으로는 논문제목 및 요약부분, 논문의 내용분

석을 통해 순수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취업진로 문제를 다루는 논문들 중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와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총 74개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2 분류기준 및 분류방법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는 기본 항목인 서지 정보와 내용분석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Table 1]과 같이 나누었다. 세부항목으로는 연구주제, 분석대상, 연구방법, 예술분야로 채택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and Methods

Analytical viewpoints	Details	Classification criteria	References	
Basic information	Bibliographic information	Publication date	J. Kim and H. Park (2014).	
		Career choice; Employment, career choice factors, barriers, views on occupation, job preference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Career-related stress, maturity, anxiety, development competences (preparation behaviors)		
		Majors: Satisfaction levels, major relevance, major adequacy		
Content analysis	Research topics	Curricula: Satisfaction levels and actual curricula of program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Kucuk et al.(2013)	
		Others: Cultural and Art Educator Certification system, cultiv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employment/ job creation, NCS and others related to policies		
		Research subjects		Each year, mixed (3+4, 2+3+4), all years, others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 others
Art fields	Dance (Contemporary, Traditional, Ballet), Music (Practical/ Traditional), Theater/ Musical, general arts,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Standard Code Classification System for Faculties and Departments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연구주제는 이미 연구가 수행된 진로분야 연구동향 분석의 선행 연구[25]를 고찰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6가지(취업 및 진로 선택, 인식 및 태도, 적응·행동·경험, 전공, 진로교육과정, 기타) 분석 기준을 재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분석대상은 학년별, 전학년 대상, 혼합(2+3+4학년, 3+4학년), 기타(학생들과 교수, 고등학생과 대학생비교, 재학생과 졸업생,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들과 혼합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연구를 참조하여[26],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양적/질적 분석을 모두 수행한 혼합연구, 개념적/이론적 분류기준을 통해 기존 연구를 분석한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예술분야 분류기준은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정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등교육기관학부·과표준 코드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순수예술분야(무용, 연극, 음악, 미술 등)에 한정하여 분류하였으나, 예술분야 일반을 다룬 혼합연구와 예체능계를 다룬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4. 분석결과

4.1 진로분야 관련 연구의 일반현황

예술분야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양적·질적 성과가 큰 편은 아니다. 문화산업으로 확대해도 취업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동향 역시 수행되지 않았다. 연구동향 분석은 특정 분야의 연구 역사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존 연구 활동에 미진한 점을 파악하여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해진다. 우선,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1차적으로 ‘대학생’, ‘취업’, ‘진로’를 핵심 용어로 포함하고 있는 287건의 저널논문과 297건의 석·박사학위논문을 추출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진로와 관련한 연구동향은 [Table 2]와 같다.

전체적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연구편수가 증가하였고,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편수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Trends of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Career

Division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Theses	12	22	38	44	37	49	53	32	287
Dissertations	11	21	36	42	38	38	48	63	297
Total	33	43	74	86	75	87	101	95	594

반면, 예술분야에서의 대학생 대상 진로 분야의 연구동향은 [Table 3]에서와 같이,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21건, 박사학위 5건으로 총 26건이며 대부분 석사학위 논문에 집중되어 있다. 학술지의 경우 2014년에 15편이 연구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수는 적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져 왔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and Method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Dissertations	2	3	4	-	2	2	3	-	3	2	5	26
Theses	4	3	5	4	1	2	4	5	12	4	4	48
Total	6	6	9	4	3	4	7	5	15	6	9	74

4.2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결과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적응·행동·경험과 관련된 주제로 진로 스트레스, 진로 성숙도, 불안, 준비역량이나 개발역량 등을 다룬 연구주제가 총 24편(32.5%)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교육사, NCS, 예술분야 일자리나 취업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가 12편으로 16.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직업관, 직업 선호도, 선택요인이나 장애요인 등을 주요 연구문제로 연구한 논문이 10편(13.5%)으로 진행되었으며, 취업진로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가 10편(13.5%), 진로와 관련한 학과 내 교육과정이나 학교 취업센터 등의 프로그램 내용, 학생들의 만족,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10편(13.5%)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한 전공만족도, 전공일치, 적합도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8편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적응·행동·경험관련 연구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주제는 비슷한 편수로 연구되었다.

Table 4.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opics

Research topics	Major research problems	Number (%)
Career choice	Career choice; Employment, career choice factors, barriers, views on occupation, job preferences	10 (13.5%)
Perceptions and attitude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10 (13.5%)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Career-related stress, maturity, anxiety, development competences (preparation behaviors)	24 (32.5%)
Majors	Majors: Satisfaction levels, major relevance, major adequacy	8 (10.8%)
Curricula	Curricula: Satisfaction levels and actual curricula of program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10 (13.5%)
Others	Others: Cultural and Art Educator Certification system, cultiv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employment/ job creation, NCS and others related to policies	12 (16.2%)
Total		74

4.3 연구주제별 성별, 학년별, 연구방법, 분야별 분석결과

연구주제별 성별, 학년별, 장르별, 연구방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성별연구에서는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의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생 대상의 논문의 경우 여대생의 진로

선택시의 장벽과 관련된 연구와 여대생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각 1편씩 연구되었다.

학년별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편으로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연구로 고교생, 졸업생, 교수자,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구가 19편(26%), 2·3·4학년이나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7%),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로 단 1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지도는 학년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모든 주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적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사례연구 1편, 전공 중도탈락과 관련된 사례연구 1건, 혼합연구는 이론 및 개관이 1편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방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포함)분야 연구가 5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제별로도 고르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음악(국악, 실용음악 포함)분야 10건(13.5%)으로 연구건수는

Table 5.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opics: Gender, Years in College, Research Methods, and Art Fields

Division	Research topics						Total N(%)	
	Career choice	perceptions and attitudes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Majors	Curricula	Others		
Gender	Male	-	-	-	-	-	0(0%)	
	Female	1	2	-	-	-	3(4%)	
	Mixed	9	8	24	8	10	12	71(96%)
	Total	10	10	24	8	10	12	74(100%)
Years in College	Each year	-	-	1	-	-	-	1(1.4%)
	Mixed (3+4, 2+3+4)	-	-	2	2	1	-	5(6.8%)
	All years	8	8	20	6	4	3	49(66.2%)
	Others	2	2	1	-	5	9	19(25.6%)
	Total	10	10	24	8	10	12	74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9	10	24	7	10	11	71(96%)
	Qualitative	1	-	-	1	-	-	2(2.6%)
	Mixed	-	-	-	-	-	1	1(1.4%)
	Total	10	10	24	8	10	12	74
Art fields	Dance	8	8	18	6	7	7	54(73%)
	Music	1	1	2	2	3	1	10(13.5%)
	Fain arts	-	-	1	-	-	-	1(1.4%)
	Theater/ Musical	-	-	-	-	-	-	0(0%)
	General arts	1	-	2	-	-	3	6(8.1%)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1	1	-	-	1	3(4%)
	Total	10	10	24	8	10	12	74
Total(%)	13.5%	13.5%	32.5%	10.8%	13.5%	16.2%	100%	

많지 않지만 주제별로 연구되었다. 다음으로는 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진행된 연구들이 6편(8.1%)이 연구되었고, 예체능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가 3편(4%)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술 일반과 예체능관련 연구주제는 문화예술교육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제도 등과 관련된 연구나 NCS, 예술분야 일자리나 취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연구이나 뮤지컬, 예술경영 분야에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예술대학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74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성별, 학년별, 예술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로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진로 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21건, 박사학위 5건으로 총 26건이며 대부분 석사학위 논문에 집중되어 있다. 학술지의 경우 2014년에 15편이 연구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편수는 적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져 왔고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대학생에 관한 진로 및 적성에 관한 연구가 2006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는 김계원 외[24]의 연구처럼 일반적인 국내 진로 연구 추세와 달리 10년 동안 눈에 띄게 연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다 예술분야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적응·행동·경험과 관련된 주제로 진로스트레스, 진로성숙도, 불안, 준비역량이나 개발역량 등과 관련된 연구가 총 24편(32.5%)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NCS, 예술분야 일자리나 취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가 12편으로 16.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직업관, 직업 선호도, 선택요인이나 장애요인 등을 주요 연구문제로 연구한 논문이 10편(13.5%)으로 진행되었으며, 취업진로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가 10편(13.5%), 진로와 관련한 학과 내 교육과정이나 학교 취업센터 등의 프로그램 내용, 학생들의 만족,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10편(13.5%)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한 전공만족도, 전공 일치, 적합도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8편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적응·행동·경험관련 연구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주제는 비슷한 편수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술대학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적응·행동·경험’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대상이 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주제가 대학시기동안 겪는 진로관련 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불안, 준비행동과 경험 등 진로준비단계에서 진로 행동적 차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연구주제는 이외에 나머지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5가지 주제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국내 예술대학 대학생들의 진로관련 지도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이론 및 진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연구에서는 남녀 전체 대상의 연구가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생 대상의 논문의 경우 여대생의 진로선택시의 장벽과 관련된 연구와 여대생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각 1편씩 연구되었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진로는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접근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이고[28], 여성의 진로지도와 관련해서는 진로장애 요인인 복잡한 사회적, 집단적 특성을 이해하는 시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6]. 하지만 예술분야의 경우 성별차이나, 여학생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아직까지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예술대학의 분야별 진로지도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차이, 개인 특성 차이, 예술 분야에 따른 차이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등 실제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학년별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편으로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연구로

고교생, 졸업생, 교수자,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구가 19편(26%), 2·3·4학년이나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7%),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로 단 1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지도는 학년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학년별로 교육과정의 다르고 진로관련 준비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학년은 학교적응과 진로 준비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졸업을 앞둔 3·4학년들은 졸업과 취업을 위한 진로 준비 및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29].

다섯째, 연구방법에서의 연구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모든 주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적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사례연구 1편, 전공 중도탈락과 관련된 사례연구 1건, 혼합연구는 이론 및 개관이 1편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방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관련 연구에서 양적연구가 대부분이고 질적 연구 외 연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전 연구들[6, 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예술분야의 좀 더 풍부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와 질적, 양적방법론을 절충한 다양한 설계방식을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예술분야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포함)분야 연구가 5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제별로도 고르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음악(국악, 실용음악 포함)분야 10건(13.5%)분야로 연구건수는 많지 않지만 주제별로 연구되었다. 다음으로는 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진행된 연구들로 6편(8.1%)이 연구되었고, 예체능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 또한 3편(4%)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일반과 예체능관련 연구주제는 문화예술교육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제도 등과 관련된 연구나 NCS, 예술분야 일자리나 취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연극이나 뮤지컬, 예술경영 분야에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술분야 전공자들의 졸업 후 주요 취업업종 1위가 예능계 강사이고 월평균 임금 역시 타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예술대학 학생들이 단순한 취업률보다는 취업의 질 및 직업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진로지도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30].

전체적으로 연구의 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사회적 이슈, 학생들의 전공분야, 학년, 성별, 다양한 연구방법을 반영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u Min Park, "Stop Favoritism Towards Conglomerates to Solve Youth Unemployment", *Cultural Journal*, November 8, 2016.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02195§ion=sc289
- [2] Su Ran Kim, Mi Kyung Chung, "The Effect of College Career Course on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6, no. 3, 2014. DOI: <http://doi.org/10.17927/tkjems.2014.26.3.409>
- [3] Seoul National University, Survey on University Life, Center for Campus Life & Culture, 2015.
- [4] Dong Hyeong Yu, Hyeon Ju Min, "College Majors and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a First Job among College Graduates: Focusing on th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Major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7, pp. 149-182, 2012. DOI: <http://doi.org/10.16935/ejss.2012.27..005>
- [5] Deok Yeong Yu, "Colleges Students Need Mentors and Job Fairs", *Dong-A Ilbo*, November 29, 2017. <http://news.donga.com/3/all/20171129/87495520/1>
- [6] Seung Youn Son, Jong Yeun Lee,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and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omestic Main Counseling Journal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3, pp. 149-170, 2017.
- [7]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ictionary of Pedagogy Terms*, 1995. <http://news.donga.com/3/all/20171129/87495520/1#csidxef161a98e87397c82976285bd6016b1>
- [8]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Second-Phase 5-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 <http://www.moe.go.kr/newsearch/search.jsp#>
- [9] Hang Jo, Kay Hyon Kim, Ja Myoung Yi,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in Korea: Based 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2099-2113,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4.200912.2099>

- [10] Yoon Jung Choi et al., "A Review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for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2, pp. 1285-1308.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2.201304.1285>
- [11] Soo Im Kim, Chang Dai Kim,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Choices: A Literature Review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573-1591.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3.200909.1573>
- [12] Hee Eun Kim, Mi Hyun Lee, In Gyu Kim. "The Recent Trends and Meta Analysis of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4, pp. 1441-1456.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4.201408.1441>
- [13] Yoon Jung Choi, Ji Eun Lee. "A Review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Intervention Outcome Stud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1, pp. 321-341.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1.201402.321>
- [14] Gyeong Mi Kim, Sa In Baek, "Effects of Holland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of College Freshmen,"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 no. 2, pp. 19-30, 2011.
- [15] Eun Hee Kim, Bong Whan Kim, "The Effects of 「Break Down The Women's Career Barriers Counseling Program」 o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Women's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2225-2239,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4.200912.2225>
- [16] Won Jun Kang, Jong In Kim, Jung Won Kim, "A Study On The Analyses And Effectiveness Of The Job Search Supporting Programs By Univers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 15, no. 1, pp. 17-36, 2008.
- [17] Mae Hyang Hwang, Man Ik Son, Hye Yeong Kang, "The Effectiveness of A College Career Cours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9, no. 1, pp. 71-91, 2007.
DOI: <https://doi.org/10.15753/aje.2007.8.1.004>
- [18] Jong Chan Lee, Ah Jeong Hong,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 15, no. 3, pp. 215-245, 2013.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3.15.3.009>
- [19] Yeon Hwa Lyoo, Kyoung Ae Im, "Perception Survey on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of Early Childhood Majors in K-Univers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6, no. 3, pp. 271-289, 2012.
- [20] Man Bong Cheon, Jong Gu Lee, "A Study on the Factors of Job Seeking Stress for Graduated in Korea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20, no. 6, pp. 191-214, 2013.
- [21] Hyun Seok Choi, Yeong Seon Lee, Jeong Cheol Ha, "A Study on the Impact of Stress on Self-Confidence in Job-Seeking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2, no. 2, pp. 313-322, 2011.
- [22]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s of Korea, Article 2 (1). http://www.mcst.go.kr/web/s_data/ordinance/statute/statuteList.jsp?pMenuCD=0405010000&pType=&pSearchWord=%EB%AC%B8%ED%99%94%EC%98%88%EC%88%A0%EC%A7%84%ED%9D%A5%EB%B2%95&x=0&y=0
- [23]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2017.
- [24] Gye Won Kim et al.,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2009)",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0, no. 2, pp. 933-945, 2011.
- [25] Jeong Hyeon Kim, Hyeon Ok Park, "An Analysis of Trend in Research on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fter the year 2000",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30, no. 3, pp. 95-108. 2014.
- [26] Kucuk, S., Aydemir, M., Yildirim, G., Arpacik, O., & Goktas, 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trends in Turkey from 1990 to 2011", *Computers & Education*. 68, 42-50, 2013.
DOI: <https://doi.org/10.1016/j.compedu.2013.04.016>
- [27] Jeong Geun Kim, "The Study on the Effects of Individual'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3, pp. 161-179, 2012.
- [28] Gyeong Won Yun, "Research on a New Approach to Students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Korea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Institute*, vol. 3, no. 2, pp. 43-61. 2013.
- [29] Ji Yeong Shin, Seong Sil Park, Jeong Eun Hyeong.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1, pp. 19-35, 2012.
- [30] Joo Hee Kang, Ji Yeon Lee, "Rethinking Career Planning and Career Consulting for Art Majors in Higher Education", *Arts and Education*, vol. 15, no. 3, pp. 99-120, 2014.

구 은 자(Eun-Ja Koo)

[종신회원]



- 200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과(공연예술학석사)
- 2016년 8월 :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예술경영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진로, 공연예술, 마케팅, 소비자